

이토록 뜨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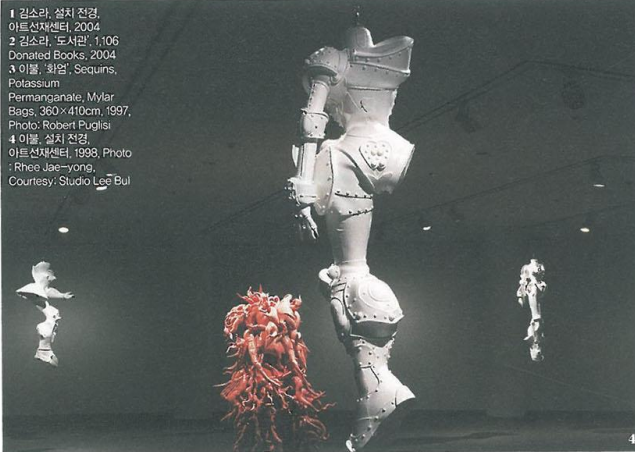
Octob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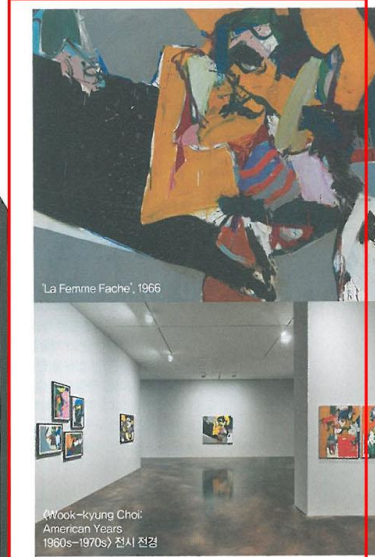
스틸 액트!

새롭게 단장 중인 아트선재센터가 완공 예정인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모양이다. 공사를 중단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전시 <커넥트 1, 스틸 액트>전을 진행한다. 개관 기획전을 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선보인 전시를 재해석한

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화려한 장식의 생선 98마리를 비닐에 넣고 벽에 걸어 전시한 이분의 '잠입한 광채'. 생선 썩는 냄새로 MoMA에서 철거되기도 했던 논란의 작품이 20년 만에 처음 대중에게 공개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그녀와 함께 소속했던 그룹 '뮤지엄'의 작가 김소라, 정서영도 참여한다. 세 명 작가들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주요 작업을 살펴보는 이번 전시는 이 시기 작품들이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여전히 움직임'을 시사한다. 전시 중 아티스트 토크도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작가의 일정을 확인해 볼 것.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1 김소라, 설치 전경, 아트선재센터, 2004  
2 김소라, '도시관', 1106 Donated Books, 2004  
3 이분, '화염', Sequins, Potassium Permanganate, Mylar Bags, 360 x 410cm, 1997, Photo: Robert Puglisi  
4 이분, 설치 전경, 아트선재센터, 1998, Photo: Rhee, Jee-myung, Courtesy: Studio Leg B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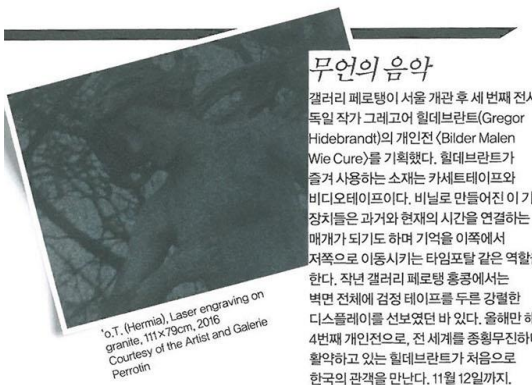


'La Femme Fache', 1966

'Wook-kyung Choi: American Years 1960s-1970s' 전시 전경

이토록 뜨거운

추상화가 최옥경의 전시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최옥경은 요절한 여성화가라는 불운한 생애와 미국식 추상표현주의를 들이든 선구자적 입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미국에 거주하던 시기인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약 15년간 제작된 회화작품 70여 점을 선보인다. 당시 미국 미술은 추상표현주의가 지배했던 시기였다. 그녀는 이러한 서구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자신만의 조형적 언어를 찾아내는 실험에도 몰두한다. 1970년대 들어서는 한국적인 소재와 전통적 색감을 결합한 강렬하면서도 독자적 세계를 선보였다. 단색화가 주류이던 시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최옥경의 작품이 재조명된다. 전시는 10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무언의음악

갤러리 페로텔이 서울 개관 후 세 번째 전시로 독일 작가 그레고어 힐데브란트(Gregor Hildebrandt)의 개인전 <Bilder Malen Wie Cure>를 기획했다. 힐데브란트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는 카세트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이다. 비닐로 만들어진 이 기록 장치들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며 기억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타임포탈 같은 역할을 한다. 작년 갤러리 페로텔 홍콩에서는 벽면 전체에 김정 테이프를 두른 강렬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던 바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 개인전으로, 전 세계를 중흥무진하며 활약하고 있는 힐데브란트가 처음으로 한국의 관객을 만난다. 11월 12일까지.

'o.T. (Hermia)', Laser engraving on granite, 111 x 79cm, 2016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Perrotin



'Still of Abstract Verb- Can You Remember?' Digital Print, 2016, Courtesy of the artist and PKM Gallery

추상동사의 물음

PKM갤러리는 10월 7일까지 배영환의 개인전을 진행한다. 배영환은 조각과 회화, 영상, 설치 등 매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으로 이미 잘 알려진 작가이다. 이번 전시는 배영환의 근래 작품 11점을 재구성하여 선보이는 자리이다. 초기 대표작 '유행가' 이후, 배영환의 작업들은 획일화된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번 전시의 대표적인 4채널짜리 '추상동사'는 최근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연작이다. 작가는 박제되어 개념으로만 남은 추상명사 대신 의지와 행위를 가진 '추상동사'에 주목하여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물음을 던진다.